

광산구 위기 아동 보호망 촘촘해진다

전담팀 꾸려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아동보호 예방교육·캠페인 강화 전담 의료기관·학대아동 쉼터 운영

광주 광산구가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과 웃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보호 기반 조성에 나선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2021년 신설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광산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9년 300건에서 2020년 262건, 2021년 288건에 이른다.

그만큼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중도 70~80% 정도로 높았다.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린 광산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두 축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가동 중이다.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아동보호팀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상시 24시간 형태로 운영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례관리 점검 및 사후관리 등도 수행한다.

특히 경찰, 서부교육지원청,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정보연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빠른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으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나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실제 정보 공유를 통해 광산구는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부모의 방인 행위를 확인한 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후



광주 광산구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 조치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또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 건강한 양육문화 확산도 도모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과 관내 학교 등을 중심으로 아동학대가 지역사회 모두의 감시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적극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역 주민, 공직자는 물론 아동 관련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확대·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 번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재학대 당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고위험 아동'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긍정적 변화의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광산구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74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 학대 판단 건수를 비교해도 2021년 230건에서

2022년 129건으로 100건 정도가 감소했다. 광산구는 이를 발판 삼아 '아동학대 제로화'를 목표로 더 촘촘한 아동보호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5곳을 지정·운영 중이며, 올해는 LH광주전남지역본부·광산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조성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을 신속히 가해자와 분리해 심리상담 등을 통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으로, 이르면 이달 중 개소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마땅한 아동의 권리"라면서 "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보호망을 통해 아동이 웃음을 잃지 않는, 아동이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민선8기 공약 실천 최고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평가

광주 광산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약의 실효성,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철학 및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 계획 등을 중심으로 ▲가치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 일치도 등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절대평가에 따라 총 5개(SA, A, B, C, D)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중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SA'는 90점 이상이 되어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공약 실천계획의 연차별 달성 목표를 정량화하고,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실행가능한 단계별

이행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문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19명)'과 함께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배심원단(35명)'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실천계획서를 점검받는 등 수립과정부터 시민 참여와 속의 과정을 통해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공약관리 조례'를 제정해 민주적·체계적 공약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광산구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매니페스토 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 접근성 개선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을 받았다.

한편 광산구는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를 비전으로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4대 분야 40개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는 최근 광주광산우체국 집배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복지집배원' 활동 시작

120명 명예복지공무원 위촉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전달할 광산구 '복지집배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광산구는 "최근 광주광산우체국 집배원 120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광산구와 광주광산우체국이 체결한 '복지지원기 운영서비스'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집배원들은 주

거 취약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장기간 우편물 미수거 가구 등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배원 신고와 제보에 따라 광산구는 위기가구 여부를 판단,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사업 관련 정보도 집배원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혼밥 환영"... '광산혼당당' 음식점 20곳 지정

광주 광산구는 "혼자서도 1인 식사가 가능한 '광산 혼당당(혼자서도 당당한 식당)' 20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광산 혼당당(堂)' 운영 사업 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전체 신청 업소에 대한 서류 심사, 현장평가를 거쳤다. '광산 혼당당(堂)' 사업은 혼자서 이용하는데 편리한 식당을 공개해 소비자 및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상시 1인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1인 반상 또는 1인석을 보유하며, 정갈한 위생, 친절할 응대를 유지해야 한다.

광산구는 지정된 '광산혼당당' 업소당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지정된 업소 명단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광융합 무역 촉진단 170만달러 수출 계약

필리핀·베트남 5박 7일 판로 개척 183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거둬

광주시 북구 광융합 무역촉진단이 1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 광산업진흥회, 북구 관내 기업 관계자 등 26명으로 구성된 광융합 무역촉진단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해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번 무역촉진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의료·통신 등 북구 내 광융합 관련 유망 기업 12곳이 참가했다.

북구는 기업 우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광케넥터, 광케이블 접속함, 광모듈·광센서,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등 170만 달러(22억 60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목표액이었던 100만 달러의 2배 가까운 규모로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북구청장은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무역 촉진단은 현지 광융합

관련 공공기관과 유망 바이어사를 방문해 기업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 초청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전략으로 현장에서 1830만달러(243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115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역촉진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력 업종인 광융합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수출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